

‘솔라시도’ 과도한 규제에 발목 잡히나

1가구 2주택 중과세 분양 저조 우려
“기업도시 활성화 위해 제도 완화 필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가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올 상반기 솔라시도 주거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1가구 2주택 중과세 정책, 미비한 국가 예산 지원 등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솔라시도(구성·삼호·삼포지구)사업 지구 중 면적이 가장 넓은 해남 구성지구에서 스마트 블루시티 선도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발전소(98MW·48만평)와 태양의 정원이 지난 2020년 준공됐다. 지난해에는 솔라시도 골프장(18홀)이 개장했고 해남 유립마을 테마파크 조성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선정돼 향후 3년간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공사 진행중인 진입도로 준공이 완료되면 솔라시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까지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져 수도권이나 부산·경남권에서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언뜻 보기엔 솔라시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는 6월 구성지구의 기본소득 공유형 시범주택(500세대)의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정부의 1가구 2주택 중과세 정책이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도시 지역(용도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곳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인 영암·해남은 농업용 간척지이지만 용도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재 구성지구 시범주택단지에 대해 1,600건의 사전정약의향이 접수된 상황이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기업도시 활성화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의 행복도시, 새만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행복도시와 새만금의 경우 청 단위의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해 도시개발, 정주여건 조성, 투자유치 등 전체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두 지역의 경우 진입도로·도시기반 시설 구축에 국비 10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기업도시의 경우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50% 예산을 보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에는 정부가 주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세종시와 달리 개발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주거단지 분양이 차질을 빚을 경우 조성사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 법 개정 건의와 농어촌 주택 가액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장촉진지역·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위치한 영암·해남 기업도시 주택을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정주인구를 창출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까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요정

당 정책법안 반영과 신속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상승열기를 지방으로 분산 유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도시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드라이브스루 졸업

4일 오후 광주시 남구 한 중학교에서 졸업생이 차량에 탑승한 채 선생님에게 졸업장, 졸업앨범 등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받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김성훈 기자

한국에너지공대 95.3대 1, 지스트 82.3대 1

지역대학 정시 마감...일부 '미달'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상승한 반면,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미달사태를 피하지 못하는 등 대학별로 엇갈렸다.

4일 광주·전남 주요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정시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1,769명 모집에 6,940명이 지원해 3.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2.71대 1보다 상승했다.

조선대 역시 1,441명 모집에 4,253명이 지원해 2.95대1(정원 내 3.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 지난해 경쟁률 2.31대 1보다 상승한 수치다. 첫 학부 신입생을 모집한 약학과는 일반과 지역인재전형에서 각각 9.50대 1과 8.3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에서는 치의예과 5.28대 1, 의예과 5.24대 1이 뒤를 이었다.

오는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는 10명 모집에 953명이 지원해 9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마감한 수시 모집에서도 100명 정원에 2,412명이 지원해 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 낸 가운데 등록률 100%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과학기술 이공계 특성화대학과 비교할

경우 2~3배 높은 경쟁률이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20여명을 선발한 정시모집에 1,646명이 지원, 82.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정시모집 경쟁률 중 가장 높고 전국 4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중 경쟁이 치열했다.

반면 동신대와 광주대 호남대 등 광주·전남 지역 상당수 사립대학의 경우 정시모집 미달을 벗어 나지 못했다.

광주대는 431명 모집에 353명이 지원해 0.82대 1, 호남대는 302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해 0.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신대학교는 모집 인원 630명에 551명이 지원, 경쟁률은 0.87대 1로 집계됐다. 다만 한의학과는 20명 모집에 200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나라 기자

이용섭 “광주형 일자리 ‘시즌2’는 부품공장”

광주시가 노사상생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이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 구상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광주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메카,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쪽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동차 공장의 성공을 이룬 만큼 친환경, 부품 등 관련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광주는 2개 브랜드(기아·GGM) 자동차를 생산하고 친환경 차 부품 클러스터, 국내 유일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 경제자유구역을 갖춰



다”며 “자동차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대표 도시이기도 하고 친환경 배터리 팩 제조공장도 들어선 만큼 결국 (투자 유치 분야는) 부품 공장”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선이 우선”이라며 “대선 전까지는 지역 숙원 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SURGENTE